광엑스포 150만명 관람 '2010 광주세계광엑스포'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행사장인 광주시 서구 상무공원에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지난달 2일 개막된 엑스포 기간 동안 모두 148만명의 관람객이 찾은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신규택지지구 2014년까지

유치원·초중고 20곳 문연다

오는 2014년까지 수완·첨단·효천지구 등 광주지역 신규택지지구에 유치원과 초·중·고교 20곳이 새롭게 문을 연다. 그동안 학교 신설 계획이 보류돼 지역주민의 반발을 샀던 가칭 수완 8초등학교<본보 2월 10일자 6면>도 2013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효천 1초등학교와 수완 8초등학교, 신용중학교 등 3곳의 2013년 3월 개교계획을 확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또 첨단 3유치원과 첨단 3초교, 지원초교, 효천중, 신창 2중학교 등 5곳에 대해서도 오는 2014년 3월 개교 계획을 수립했다. 이 밖에 유치원 3곳과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 특수학교 1곳 등 12개교는 설립계획을 마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개교를 목표로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2013년 3월 남구 효천1도시개발지구에 개교하는 효천 1초교는 30학급 규모이며, 광산구 수완택지개발지구에 개교하는 수완 8초교는 24학급이다. 또 같은 시기에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에 들어서는 신용중학교는 27학급이다.

2014년 3월 개교 예정인 학교도 모두 5곳에 이른다.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에 5학급 규모의 첨단 3유치원과 36학급 규모의 첨단 3초교가 들어선다. 또 동구 월남·선교동 주택단지에는 지원초교(18학급)가 신설되며, 남구 효천2국민임대주택단지에는 효천중(24학급), 광산구 신가동주택재개발구역에는 27학급 규모의 신창 2중학교가 문을 열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지역 학교 설립 계획

개교년도	학교구분	학교명(가칭)	위 치	학급수
2011 (5곳)	유	첨단2유치원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 내	8
	초	수완1초	광산구 수완택지개발지구 내	30(1)
		첨단2초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 내	36(1)
	중	수완3중	광산구 수완택지개발지구 내	30
	고	첨단2고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 내	30(2)
2012 (5곳)	유	선운초병설	광산구 선운택지개발지구 내	2
	초	선운초	광산구 선운택지개발지구 내	36(1)
	중	선운중	광산구 선운택지개발지구 내	24(1)
	고	수완1고	광산구 선운택지개발지구 내	36(2)
	특	선우학교	북구 일원	34
2013 (5곳)	유	효천2 1초병설	남구 효천2국민임대주택단지 내	2
	초	효천2 1초	남구 효천2국민임대주택단지 내	30(1)
		효천1초	남구 효천1도시개발지구 내	30(1)
		수완8초	광산구 수완택지개발지구 내	24(1)
	중	신용중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 내	27(1)
2014 (5곳)	유	첨단3유치원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 내	5
	초	첨단3초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 내	36(1)
		지원초	동구 월남동선교동주택단지 내	18(1)
	중	효천중	남구 효천2국민임대주택단지 내	24(1)
		신창2중	광산구 신가동주택재개발구역 내	27(1)

*( )는 특수학급수

"어린이 자정까지 돌봐줍니다"

오늘부터 광주 북구 58개 보육시설 연장운영

광주시 북구지역 어린이집 58곳(69개반)의 운영시간이 자정까지 연장 시범·운영된다.

북구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의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지원 시범자치단체'로 선정돼 지역내 58개 보육시설을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 10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이던 보육시설 운영시간은 자정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시간연장 보육시설 정보는 중앙보육정보센터(http : //www.edu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야근 등으로 저녁시간까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보육하길 희망하는 부모는 이용이 편리한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된다.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 당 2400원으로 매월 60시간 한도 내에서 소득하위 50%는 전액을, 소득하위 60%는 60%, 소득하위 70%는 30%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최근 직장여성이 늘고 경제활동이 다양화됨에 따라 저녁시간대 육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자녀를 가진 직장여성 등 맞벌이부부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시에 등록된 어린이집은 모두 1153개소. 각 구청별로는 ▲동구 40 ▲서구 235 ▲남구 130 ▲북구 335 ▲광산구 413곳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교장 공모 최고 8대 1 경쟁

광주 평균 3.8 대 1…전남은 3.7 대 1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최근 마감한 교장 공모제에 대상 학교당 4명꼴로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을 공모한 광주는 45명이 응모해 평균 3.8대 1, 전남은 30개 학교에 110명이 응모해 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8곳에 24명, 중학교는 3곳에 17명, 고교는 1곳에 4명이 응모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8명이 응모했다.

전남은 초등학교 15곳에 62명이 접수해 4.1대 1로 경쟁률이 최고였으며, 중학교는 10곳에 31명, 고교는 5곳에 17명이 응모했다.

초등 2곳에 각 7명이 몰려 경쟁률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와 고교 각 1곳은 지원자가 1명에 그쳐 11일까지 재공고~하기로 했다.

공모 대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육청에 3배수 이내로 추천하고, 교육청은 다시 2차 심사를 해 2배수를 교육감에 추천해 최종 1명을 선정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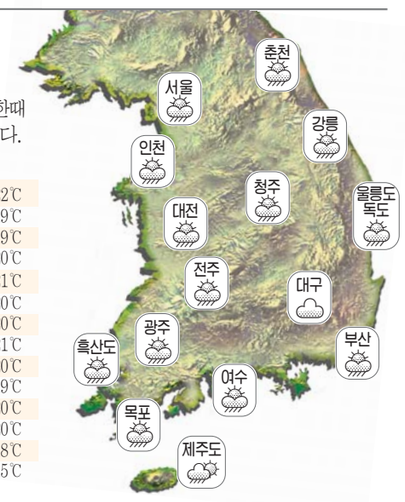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33분 해짐 19시 25분 / 달뜸 02시 58분 달짐 15시 48분

더위 식히기엔 적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 한때 비가 온 뒤 오후부터 개겠다.

광 주	가끔흐리고비	16/22℃
목 포	가끔흐리고비	14/19℃
여 수	가끔흐리고비	14/19℃
완 도	가끔흐리고비	14/20℃
구 례	가끔흐리고비	14/21℃
해 남	가끔흐리고비	14/20℃
장 흥	가끔흐리고비	14/20℃
고 흥	가끔흐리고비	14/21℃
순 천	가끔흐리고비	14/20℃
영 광	가끔흐리고비	14/19℃
진 도	가끔흐리고비	13/20℃
전 주	가끔흐리고비	14/20℃
남 원	가끔흐리고비	12/18℃
흑산도	가끔흐리고비	10/1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북~북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1.5m
먼바다	서~북서	1.0~2.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높음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먼바다	서~북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5~2.0m
먼바다	서~북서	1.5~2.5m

	밀물	썰물
목포	11:31 --:--	04:55 17:06
여수	06:41 19:01	00:26 12:4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1(화)	12(수)	13(목)	14(금)	15(토)	16(일)
날 씨						
최저/최고	10/22	9/23	8/24	9/26	12/25	14/21

오전 5㎜안팎 비

10일 광주·전남지역은 오전 한때 비가 오다가 낮부터 갤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되는 강우량은 5㎜ 내외.

광주지방기상청은 "10일 광주·전남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한두차례 비가 온 뒤 낮에 서쪽지방부터 점차 개겠다"고 9일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6도, 낮 최고기온은 19~22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과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고, 남해서부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1.5~2.0m로 일다가 오후에 1.5~2.5m로 점차 높아지겠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범죄 피해자에도 권리고지 의무화

경찰이 범죄 피의자에게 반드시 '미란다 원칙'을 알리는 것처럼 피해자에게도 각종 권리를 의무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릴 권리는 ▲수사기관에 피해를 진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권리 ▲수사 진행사항을 통지받을 권리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권리 ▲상담지원을 신청할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 5가지이며 이르면 7월부터 전국의 경찰관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